

하시모토 쇼요시가 필사한 10여권의 고소설

하버드대 엔칭도서관의 고서들 — 마지막회

허경진 | 연세대 국문과 교수

엔칭도서관에는 일본인 하시모토 쇼요시의 장서인이 찍힌 고소설이 10여종 소장돼 있다. 조선어를 여러 해 동안 공부한 하시모토는 1894년 조선에 들어와 우리나라 고소설을 필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부산 왜관에 머물면서 조선인 친구들로부터 고소설을 빌려 베끼기 시작했는데, 고소설을 베끼는 것은 일본에서 오래된 조선어 공부방법이기도 했다. 그는 고소설을 다 베끼고 그 뒤에 자신의 필사기도 덧붙였다.

엔칭도서관에는 일본인 하시모토 쇼요시의 장서인이 찍힌 고소설이 10여종 소장돼 있다. 일본인들이 체계적으로 조선어를 공부하기 시작한 것은 아메노모리 호슈(雨森芳洲, 1668~1755)가 쓰시마로 들어온 뒤부터인데, 그는 《교린수지(交隣須知)》라는 회화책을 만들어 쓰시마의 아이들에게 조선어를 가르쳤다.

청일전쟁 전에 입국해 공부삼아 고소설 필사해

1876년에 강화도수호조약이 체결돼 조선어 수요가 늘어나자, 쓰시마 출신의 외무성 조선어학 교수였던 우라 요리히로(浦瀨裕)가 《교린수지》를 교정(校正) 증보(增補)해 1881년에 4책으로 간행했다. 엔칭도서관에는 하시모토 쇼요시(橋本彰美)의 장서인이 찍힌 《교린수지》가 2종 있다. 하나는 1883년에 간행된 《교린수지》 재간본 4책이고, 다른 하나는 이 책을 보고 베낀 필사본이다. 활자본에는 그가 조선어 글씨를 연습하던 종이도 한 장 들어 있었는데, 미농지를 넷으로 접고 위에서 아래로 15자 안팎 13줄씩 붓글씨를 연습한 종이이다. 이렇게 연습하다가 《교린수지》의 한글 부분만 베껴 필사본을 만들었으므로, 그의 장서인이 찍힌 《교린수지》가 2종이나 된 것이다.

조선어를 여러 해 동안 공부한 그는 1894년 조선에 들어와 우리나라 고소설을 필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부산 왜관에 머물면서 조선인 친구들로부터 고소설을 빌려 베끼기 시작했는데, 고소설을 베끼는 것은 일본에서 오래된 조선어 공부방법이기도 했다. 이런 방법은 아메노모리 호슈에게서 시작됐는데, 그 자신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조선에 머무는 동안 《교린수지》를 편찬하고, 《숙향전》과 《이백경전》을 필사했다.

그의 저술목록에는 《최충전》《옥교리(玉嬌梨)》《임경업전》 등의 고

소설이 소개되는데, 물론 그가 저술한 책이 아니라 필사한 책이다. 19세기 말 초량 왜관에 개설됐던 조선어학소에서도 아메노모리 호슈의 교수방법은 계속됐는데, 조선 풍습을 알게 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생도들에게 《최충전》《임경업전》《숙향전》《춘향전》《옥교리》《임진록》등을 번역해보게 했다.

하시모토 쇼요시가 필사한 고소설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은 《심천가 겸요류가》(표지 제목 《琉璃國 沈氏傳》)다. 그는 필사한 책마다 마지막 장에 간단한 필사기(筆寫記)나 발문을 남겼는데, 이 책에도 저본에 있던 필사기와 자신의 필사기를 모두 덧붙였다.

“비록 여자의 소설이지만 대장부의 마음보다 못하지 않다. /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 모두 심씨의 일을 본받기를 / 천만 양축할 뿐이다. (이상 한문) / 천고호 주의심천전이라 / 심천가 겸요류가 / 계사오월이 십사일절필라 / 칙주인의 천석여 (이상 한글) / 계사년 5월 24일 필사를 마치다. 책주인 천석여 / 이 책을 명치 27년 태양력 3월 13~14일에 / 전부 베끼고 교정도 마쳤다. / 조선국 경상도 부산동 화관 용화원 / 소주(蘇洲) 교본장미(橋本彰美)(이상 한문).”

정확한 서지사항 기록으로 자료가치 높아

처음 석 줄은 한문인데, 책주인 천석여가 쓴 글이다. 다음 한글 넉 줄도 천석여의 글이다. 1893년 5월 24일에 필사를 마치면서 자신이 책주인임을 밝혔다. 그 다음부터 한문 다섯 줄은 하시모토 쇼요시의 글이다. 그는 천석여에게서 《심천가》를 빌려다 필사하면서 마지막 장의 필사기까지 다 베끼고, 그 뒤에 자신의 필사기도 덧붙였다. 이 기록을 통해서 전년에 천석여가 베낀 《심천가》를 빌려 3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 만에 베끼고 교정까지 마쳤음을 알 수 있다. 그 뒤에는 필사한 장소와 필사자 이름까지 밝혔다. 붓으로 쓴 책들은 종이 한 면에 글씨를 써서 반으로 접어 제본하기 마련인데, 이 책 표지 속에는 글씨를 연습한 종이가 들어 있다. 그가 필사기를 쓰다 버린 종이에 “용화원 객사에서 필사했다”는 기록이 있어 더 정확한 정보를 알려준다. 만약 천석여가 필사한 저본이 발견된다면, 조선시대 고소설 필사자들이 필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변모가 일어났는지 대조·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빌려본 고소설의 주인을 모두 밝혔다. 당시 우리나라 필사자들이 저본 주인을 밝히지 않은 것과 비교해보면, 그의 기록정신이 얼마나 투철한지 알 수 있다. 1894년 9월 6일부터 10일까지는 천석여가 필사한 《동선기(洞仙記)》를 필사했으며, 1895년 2월 17일부터 19일 새벽까지는 부산진에 사는 김송여가 1892년 7월 9일에 필사했던 《등산망월전(토끼전)》을 천석여의 집에서 빌려 이들 동안 필사했다.

그는 이 해에 전라도 나주로 이사했다. 1896년 2월 10일에는 나주 남평 봉황산 망미루(望美樓) 아래 살면서 《심청전》과 《별주부전》을 필사하기 시작했다. 1897년 11월 5일에 필사한 《홍보전》의 필사기의 서지사항이 가장 인상적이다.

“홍보타령이라 / 瓢歌 一名 朴打詠 / 癸丑六月二十一日 김형 곁책을 본을받고 / 丁酉十一月初五日 필집유하노라 / 칙주 교본소주라 / 丁酉年十月十日始騰(騰) / 丁酉冬至月二十日校閱了 / 칙중도함오십일종이라”

그는 《홍부전》이 세 가지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을 기록하고, 저본이 1853년 6월 21일에 필사된 김행길 소장본임을 밝혔으며, 1897년 10월 10일부터 필사하기 시작해 11월 5일에 마치고, 11월 20일에 교열까지 마친 사실도 밝혔다. 모두 51장 분량인 것을 기록해 나중에 한두 장이 없어질 것에 대비했다.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고, 본문 첫장과 마지막 장에 자신의 장서인을 몇 개씩 찍었다. 그러기에 그가 필사한 고소설들은 당시 우리나라에 유통되고 있던 필사본들과 달리 정확한 정보를 전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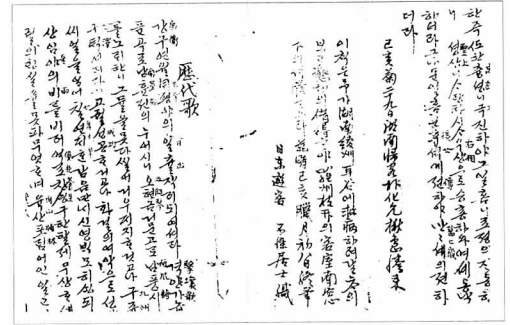
“**(하시모토 쇼요시는 고소설 필사본에)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고, 본문 첫장과 마지막 장에 자신의 장서인을 몇 개씩 찍었다. 그러기에 그가 필사한 고소설들은 당시 우리나라에 유통되고 있던 필사본들과 달리 정확한 정보를 전해준다.**”

몰락한 양반과 만나면서 고소설 필사해

그는 고소설을 필사하는 과정에서 조선 사람을 여러 명 만났는데, 이들은 대개 몰락한 양반인 듯하다. 그에게 고소설을 가장 많이 빌려준 사람은 부산 왜관에서 친하게 지냈던 천상하(千象河)인데, 자는 석여(石汝)고, 호는 난고(蘭臯)다. 천상하는 그에게 조선 아이를 소개해 줘, 그 아이의 집에 입주해서 일본어를 가르치게도 했다.

그러나 고소설 필사기의 성격상,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다. 10여권의 필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그의 신상명세는 이렇다. 이름은 하시모토 쇼요시(橋本彰美)고, 호는 소슈(蘇洲)며, 교유메이코(喬明郷)라는 낮은 지위에 속한 일본 지식인이다. 1894년 3월 이전에 부산 왜관에 들어왔는데, 일본서당·용화원 객

사·여관·조선인 집 등을 전전하면서 몇 년 동안 일본어를 가르치거나 고소설을 필사했다. 당시 일본군에서 조선어 통역이 많이 필



〈역대가〉의 필사기 부분.

요했으므로 취직자리를 얻기 위해서 조선에 들어온 듯하지만, 한동안 직업을 얻지 못했다. 1896년부터는 나주 남평 망미루 마을에 살면서 역시 고소설을 필사했는데, 1899년에는 능주에 가서 병을 치료했다. 1900년에 필사한 《옥단춘전》이나 1901년에 필사한 《역대가(歷代歌)》 필사기에 모두 ‘병중’이라고 쓴 것을 보면 오랫동안 병으로 고생한 듯하다. 그 이후의 행적은 자세치 않다.

그가 조선을 이해하려고 애쓴 것은 사실이지만, 과연 친한파였는지는 확실치 않다. 1894년 9월 10일에 필사를 마친 《동선기》 발문에 보면 “우리 일본 제국의 충성과 용맹이 절륜한 비휴 같은 군사들이 멀리서 배를 타고 연기와 물결 수천리를 건너 한국 산천에 와서, 애친각라씨의 암태지 꼬리같이 연약한 군사들을 성환 아산에서 격파해 크게 승리를 거둔 뒤이며, 아직 평양의 승리와 북경을 쳤다는 쾌보를 받기 전이다”고 했으니, 당시 일본에 흔했던 제국주의 신봉자였을 것이다. 《별출향전》 필사기에 “대일본국 하시모토(橋本) 소슈(蘇洲)”라고 자랑스럽게 쓴 것도 그렇다.

일본의 문화 스파이일 가능성 있어

그러나 그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언제나 불만스러워 했다. 자신을 산사(散史)·천애일한생(天涯一寒生)·만유사(漫遊士)·일동유객(日東遊客)이라고 소개한 것을 보면, 할 일 없는 지식인으로 생각한 듯하다. 그가 조선에 온 이유는 할 일을 찾기 위해서였는데, 일본어 강습을 거쳐 통역자리까지 얻은 듯하다. 그가 일본영사관 편지지를 사용한 증거가 있기 때문이다. 몇 차례 거주지를 옮겨 다니면서도 자신이 필사한 고소설들을 다 가지고 다녔던 것을 보면, 그는 문화 스파이였을 가능성도 있다.

그 동안 《출판저널》 지면을 통해서 엔칭도서관에 소장된 우리 고서들을 1년 넘게 소개했는데, 2백~3백년 넘은 고서들도 많았지만 주로 근세사에 관계되는 필사본들을 소개했다. 고서는 우리나라 도서관에 더 많지만, 필사본들을 통해서 감춰졌던 그 시대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랬기에 독자들에게 문의 전화도 받고 자료를 보여 달라는 부탁도 있었다. 16회 연재한 원고는 곧 단행본으로 출판할 예정이며, 그 책에서 하시모토 쇼요시에 관한 이야기도 보완하려고 한다. ■